

지역상장사, 日 무역보복·불황에도 잘 버텼다

한전, 매출 2.2% 감소...금호타이어 흑자 전환 선방 광주신세계·한전KPS, 전국 매출액영업이익률 웃돌아

한국거래소 지난해 상장기업 결산

지난해 광주·전남 상장기업들은 일본 무역보복 영향으로 적자를 지속했지만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을 낫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역 상장기업 부채비율이 지난해 100%를 훌쩍 넘어선 심각한 재무 불안정성을 나타냈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19년 광주·전남 상장기업 결산 실적'에 따르면 지역 코스피 상장기업 13개사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1.8% 낮은 65조 6015억원을 기록했다.

결산실적을 공개한 지역 상장기업은 한국전력·광주신세계·금호타이어 등 코스피 상장사 13개사와 위니아답채·오이솔루션 등 코스닥 상장사 17개사 등 총 30개 기업이다.

지역 코스피 상장기업의 매출 부진은 한국전력 실적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전 매출액은 광주·전남 전체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감면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매출이 무려 1조3383억원(2.2%) 감소했다.

한전을 제외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 1.7%, 33.8% 증가해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84개 상장사의 매출은 전년보다 40조3133억원 줄어든 1169조원으로, 감소폭은 광주·전남의 2배에 달하는 -3.3%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도 매출액 비중이 큰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211억원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으며 금호산업의 매출은 16.1% 증가하며 전년도 증가율(6.1%)을 크게 뛰어넘었다.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광주신세계와 한전 그룹사인 한전KPS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지역 상장기업 가운데 전국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4.8%를 웃도는 곳은 광주신세계(35.6%)와 한전KPS(15.7%) 2개사 뿐이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8개월 동안 288억원을 투자해 13년 만의 전관 개선품사를 마쳤다. 지난해 초 이마트 사업을 떠난 뒤 본연 사업에 집중하며 백화점 부문 매출을 14.5% 높은 성과를 거뒀다.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1952억원 내며 지역 2

■ 광주·전남 코스피 상장사 매출 추이

회사명	2019년	2018년	증감률
금호에이치티	2217	1893	17.16
금호산업	1조5973	1조3762	16.06
광주신세계	1549	1352	14.54
DSR제강	1915	1853	3.36
한전KPS	1조2446	1조2396	0.40
한전	58조9332	60조2715	-2.22
대우에이텍	3757	3868	-2.87
금호타이어	1조8209	1조8813	-3.21
보해양조	760	814	-6.68
부국철강	1323	1424	-7.09
조선내화	4679	5049	-7.32
다스코	2148	2403	-10.61
화천기공	1708	1956	-12.68
합계(13사)	65조6015	66조8297	-1.84
전국(684사)	1169조	1209조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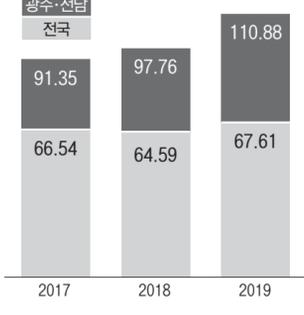
위인 금호타이어(838억)와 3위 금호산업(552억)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 규모를 보였다.

지역 코스닥 상장사 17개사 실적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24.4% 증가한 1조546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4.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통신장비기업 오이솔루션은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험하며 매출액이 1288억원(158.3%) 증가했다. 위니아답채도 매출액이 856억원

■ 상장사 부채비율



(16.4%) 증가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한편 당기순이익을 보면 전년에 이어 적자를 지속한 코스피 상장사는 한전·금호타이어·보해양조 등 3곳이었고, 대우에이텍은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제이웨이·우리로·에니젠·상상인더스트리 등 4곳이 적자를 이어갔고, 위니아답채·파루·KPX생명과학 3곳이 흑자를 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한전(14.7% ↑)을 포함한 것으로 가정하면 지난해 처음 100%를 넘긴 110.9%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91.4%, 2018년 97.8% 등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코스닥 상장사 부채비율은 57.2%로 전국 평균(63.5%)보다 낮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836.21 (+29.07) ↓ 금리(국고채 3년) 0.986 (-0.038)
- ↑ 코스닥 615.95 (+8.58) ↓ 환율(USD) 1219.50 (-1.40)

코로나 피해 70개 중기 수출바우처 29억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29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출바우처사업은 전년 수출 실적이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광주 44개사·전남 26개사·제주 15개사 등 총 85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디자인 개발, 해외바이어 발굴, 전시회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바우처를 활용하여 통·번역 서비스 등 12개 분야 5000여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인된 수행기관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수출액이 감소한 피해기업과 코로나 감염증 예방 및 진단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현조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긴급 편성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 농산물로 반찬 만들어 이웃과 나눠요”

농협 광주본부·전남본부

밀반찬 만들어 취약계층 전달

“지역 농산물로 반찬 만들고 이웃과 나눠요.”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가 지역 봉사단체와 손잡고 밀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 500가정에 전달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각각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전남도연합회와 함께 밀반찬 꾸러미를 만들어 지역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로 만든 열무김치, 매추

리알 장조림, 멸치볶음 등 밀반찬 꾸러미 500상자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개학 연기로 급식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가 등으로부터 재료를 구입해 진행했다.

농협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소외될 수 있는 고령어르신을 위해 직접 밭 벗고 나산 농가주부모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져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하고 농협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2기 대학생 홍보대사’ 25명 모집

30일까지 접수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전KDN은 오는 30일까지 ‘2기 대학생 홍보대사’ 25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홍보대사는 광주·전남지역과 수도권 등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오는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이다.

이들은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한전KDN 기업을 소개하고 ▲에너지ICT산업 소개 ▲생활 속 에너지 이야기 소개 등 활동을 한다.

참가자에게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활동이 끝나면 수료증과 우수팀

상금이 주어진다.

지난 1기에는 광주·전남 대학생과 유학생 등 20여 명이 참여해 3개월 동안 활동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을 늘리고 한전KDN 직원과 홍보대사 간 멘토링 프로그램과 강의를 추가했다.

한전KDN 멘토들은 회사 업무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줄 예정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생에게 많은 경험을 주면서 향후 취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으로 30% 경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등이 주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30%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방문객 감소·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지난해 4016억원(26만9000건)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롯데마트 수안점 6억1870만원과 광주신세계 5억8277만원 등 총 128억5000만원(7036건)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걷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신입사원 입사식·1분기 지속성장위 개최



(주)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가운데)가 최근 신입사원 4명과 입사식을 가졌다.

(해양에너지 제공)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해양에너지 (주)해양에너지 신입사원 입사식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주)해양에너지는 최근 ‘2020년 신입사원 입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채에서 선발된 신입사원은 총 4명으로, 6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거쳐 부서 배치됐다. 해양에너지는 지난해 정규직 사원 14명을 채용했다.

또 해양에너지는 9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2020년 1분기 지속성장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적과 올해 경영목표,

차세대 IT 플랫폼 구축 현황, 태양광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숙희 ㈜그린이엔에스 대표를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지속성장위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조정금리)

대금결제: 현금결제, 계좌입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573-4150, 528-4150, 513-4150, 572-4150, 576-4150